

11/7(월) 욥기 묵상 49

욥기 38:8-38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8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욥에게만 향하고 있고 욥의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궁금해 하는 것을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대답을 묻고 계십니다(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8절에서부터 41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의 형식으로 말씀합니다(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먼저 바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8-11절). 성경에서 물과 바다는 혼돈의 세력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시 18:4, 74:13-14, 77:16-20, 89:9-13; 사 51:9-10,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계 12:15-16,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나 여기에서 바다는 창조주에게 맞서는 적수가 아니라 통제 받는 어린이와 같은 대상으로 비유됩니다(10-11절, “한계를 정하여 문빰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둘째로 아침과 아침노을에 관한 진술입니다(12-15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 즉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신 일을 언급하기도 합니다(13절,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대로 욥기 말씀에는 창세기에는 언급되지 않은 태초에 창조된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의 존재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창조 세계의 거대함을 말씀합니다(16-21절). 이는 지구와 우주의 넓이와 크기를 인간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8-19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나”). 우주의 크기는 지금도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지금도 우주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작은 존재인 인간을 그의 자녀, 그의 친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요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넷째로, 하늘의 현상들입니다. 기후와 천체의 높이입니다(22-38절). 욥기 38장 4-21절의 말씀이 창조 세계의 깊이와 넓이에 관한 말씀이라면 22절 이후는 창조 세계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번째 부분(22-30절)은 눈, 우박, 바람, 비, 이슬, 얼음, 서리와 같은 다양한 기후현상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두번째 부분(31-38절)은 천체와 기후의 조절과 질서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욥을 정죄한 세

친구들과 엘리후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욥에게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욥은 하나님께 물었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처럼 그의 고난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욥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마 7:7-8,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지만 정작 인내함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기도가 때로는 응답된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이전에 우리는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욥이 원하는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욥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응답인 것일까요? 욥에게 있어 하나님 자신이 응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또 들판의 양과 가축들에게 목자 이상의 응답은 없습니다. 이처럼 고난 당한 욥에게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고난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되십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같은 대형 참사가 거듭되지 않도록 올바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부터 교회학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오늘은 영유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콜롬비아에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과 5명의 선교위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이번 여행에 목적인 바를 주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수행하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